

첨단 정밀 전자장비 전문업체 LG정밀



대표이사 宋在仁

LG정밀 연혁

- 76. 2. 금성정밀공업(주) 설립
- 77. 7. 군용레이다 생산 개시
- 79. 5. 국가 검교정 3차 기관 지정
- 82. 10. 선박용 레이더, 신제품 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
- 83. 3. 금성정밀(주)로 상호변경
- 85. 12. 일본 히타치사와 오실로스코프 기술제휴
- 91. 5. 금성전기 방산사업 인수
- 91. 6. 저고도탐지 레이더 국내 최초 개발
- 93. 4. 국내 최초 방산장비 서비스센터 개소
- 94. 4. 자동차용 항법장치 개발
- 95. 1. LG정밀(주)로 상호변경
- 95. 3. ISO 9001인증 획득
- 95. 10. 일본 자나비사와 카 멀티비전 기술제휴
- 97. 1. 구미공장 증축 기공
- 97. 10. 고출력고주파 진행파관 증폭기(TWTA) 국내 최초 개발
- 97. 11. 저고도탐지레이더, 국방과학연구개발 대상 수상

■ 유도무기 종합 정비창으로 출발

LG 정밀은 국가적으로 자주국방의 필요성이 절실했던 1976년 유도무기 종합 정비창으로 출발했다. 설립 이듬해 유도탄 폭발물 검사시설을 갖추고,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따라 사이드와인더 창정비 시설을 인수한 LG정밀은 '81년 개량 호크 유도탄의 제반 정비기능을 수행하는 창인 TRMF를 주한미군으로부터 인수, 명실상부한 유도무기 종합정비창의 면모를 갖추고 본격적인 호크, 나이키의 정비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이로써 주한미군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유도무기 창정비의 국산화를 이루어 외화절감과 정비 및 수송시간의 단축은 물론 우리 군의 유도무기 획득을 위한 토대를 갖추게 되었다.

■ 금성전기 방산부문 인수로 사업규모 확대

1980년대 들어 국내 방위산업이 기본 병기의 생산기반이 완성됨에 따라 첨단 병기 생산기반 조성 단계로 이행하기 시작했고 정부에서도 절충교역 및 해외장비의 기술도입 생산을 장려하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LG정밀은 카메라, 모터, 계측기기 등 민수 사업을 다각적으로 개척하는 한편 고도 정밀 병기 정비 생산과정에서 축적한 기술을 바탕으로 해외 도입장비에 대한 절충교역 및 기술도입 생산체제를 착실히 갖추어 나갔다.

'91년 금성전기 방산부문의 인수로 기존의 유도무기, 레이더, 사통장비와 함께 통신 및 전자전, 수중무기 분야의 개발 생산능력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LG정밀은 방산장비의 독자적

개발능력을 확대하고 한국형 무기체계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호크, 나이키의 창정비를 지속하면서 레이더 부문에서 해상감시 레이더, 항공 관제 레이더, 소나 장비 등의 생산을 본격 추진하였는데 특히 레이더 부문에서 개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저고도 탐지 레이더를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하는데 성공함으로써 국내 최고의 레이더 전문업체로 성장하게 되었다.

또한 통신전자부문에서는 무선중계 단말세트, FM소형 무전기, 반송장비 등의 생산을 추진하였고, 지휘통제부문에서는 발칸레이더 및 다연장 사통장비 사업을 전개했다. 특히 항공전자 부문을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포함시켜 육군 및 함정용 전자전장비 및 항공기용 전자전장비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절충교역 방식에 의한 납품도 활발히

▼ LG정밀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저고도탐지 레이더. 업체개발품으로는 최초로 국방과학연구개발 대상을 수상했다



▲ LG정밀은 해외기술 Sourcing 및 해외 우수연구인력의 영입 등으로 R & D 글로벌화의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이루어져 초계함용 소나, 함정용 피아식별기, 경비함 대공 레이더 등 1980년대 말까지 10개 부문에 걸친 사업이 전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LG정밀은 주요 구성품 제작기술 및 정비 시험에 관한 다양한 정밀 기술과 경험을 축적하여 정비비용 절감과 군수지원 기간 단축효과를 거둔 외에 관련분야의 장비개발에 한 발 다가설 수 있게 되었다.

사업의 다각화와 함께 LG정밀은 '93년 4월 국내 방산업계 최초로 방산장비 전문 서비스센터를 개설하면서 '軍도 고객'이라는 인식의 전환과 방위산업에 새롭게 서비스 개념을 도입하였다.



의 정비능력 향상에도 기여하게 되었다.

■ 레이더, 통신 등 6개 분야 기술개발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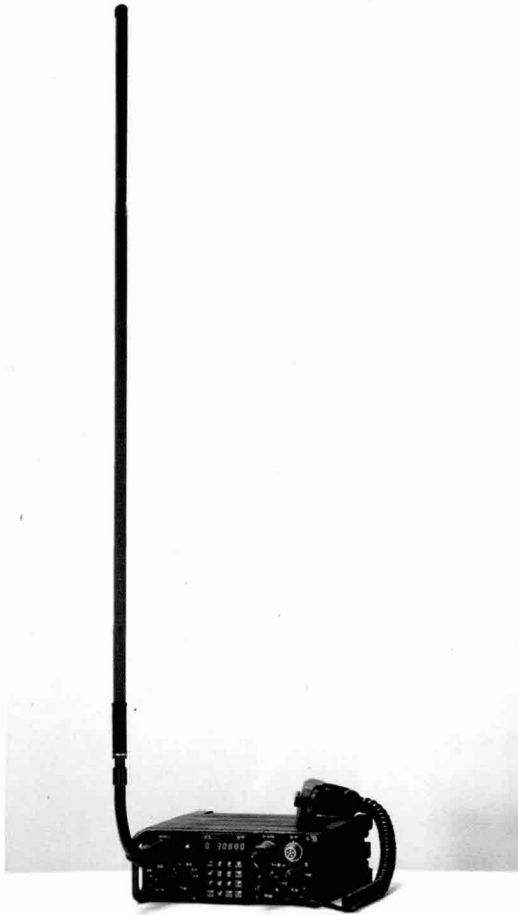
LG정밀은 설립 이래 오늘날까지 선진국들이 핵심 기술의 이전을 회피하는 첨단 무기체계의 국산화와 고도 정밀기술의 개발에 앞장서 왔으며 현재 6개 SPG(전략사업단위)별로 신사업 발굴과 개발사업 및 양산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유도무기 분야에서는 대공 방어용 유도무기인 호크, 나이키, 지대공 단거리 유도무기체계, 지대지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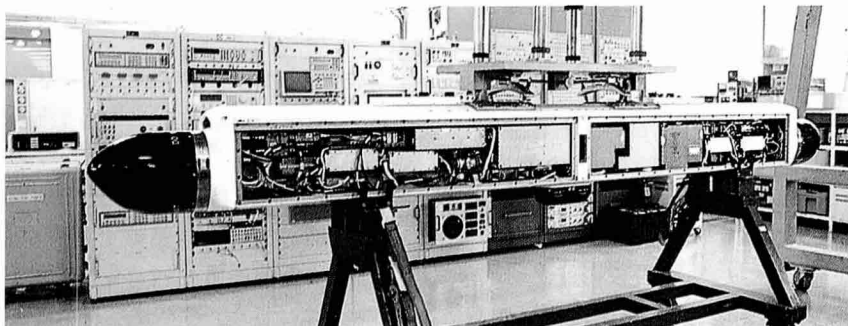
도무기체계, 공대공 유도탄인 사이드와인더 그리고 휴대용 유도탄에 이르기까지 각종 유도무기에 대한 개발, 생산, 개량 및 창정비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레이더 분야에서는 지상용 방공 레이더를 비롯한 함정용 항해 및 대공레이더, 해안과 해상감시용 레이더 등 다양한 종류의 첨단 레이더를 독자적으로 개발 생산하고 있다.

특히 저고도탐지 레이더는 89년 시제 개발

▶ 한국인의 체형과 전술환경 등을 고려해 설계 제작된 주파수 도약형 무전기



통신장비의 보급증가에 대비하여 사전 서비스체제를 강화하고 제품의 수요창출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개설한 이 서비스센터는 일반 對民 서비스센터와 같은 형태를 갖추어 긴급 정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케 했고, 그동안 순회 서비스에만 의존하던 체계에서 벗어나 기동성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군의 다양한 서비스 요구를 폭넓게 수용하면서 기술지원을 통해 군 자체



◀ 최첨단 기술로 개발된 국내 유일의 항공기 탑재형 전자 방해장비 및 시험장비

에 성공한 뒤 무기체계 채택까지 70여억 원의 개발비를 투입, LG정밀이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한 장비로, 저고도로 침투하는 AN-2기나 헬기 등과 같은 항공기뿐만 아니라 초음속으로 비행하는 항공기까지도 탐지할 수 있는 첨단 레이더이다.

악천후나 전자방해 조건하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며, 특히 산이 많은 우리나라의 지형조건에 맞게 이동물체만을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 레이더에는 펄스 압축기술을 비롯, 디지털 신호처리 기술, 다중표적 동시추적 기술, 위협도 및 무기할당 기술 등 LG정밀이 그간 축적한 최첨단 레이더 기술이 집약되어 있다.

이 저고도 탐지레이더는 '97년 11월 3일 국방부가 방산물자에 관한 연구실적이 우수한 연구기관 및 업체에 수여하는 국방과학연구개발상 시상에서 업체 개발품으로는 최초로 대상을 수상했다. 특히 금속 지뢰탐지기와 사탄관측 모의훈련장비도 각각 장려상을 수상, LG정밀은 국방과학연구소가 독점해오던 무기체계 연구개발 부문에서 대상과 함께 3개 부문 동시 석권이라는 쾌거를 올리기도 했다.

또한 통신장비 분야에서는 군 통신의 현대화 추세에 발맞추어 최신 전자기술을 이용한 첨단 통신장비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보다 소형·경량화된 단거리 휴대용 FM무선 송수신기는 물론 각종 전자파 간섭이 심한 환경에서도 신뢰도가 높은 주파수 도약형 FM무선기, 컴퓨터 제어형 전술용 전자식 교환기, 야전환경에 적합한 전술용 무선 중계기와 단말기 등을 자체 개발, 생산하고 있다.

지휘통제시스템 분야에서는 사격지휘 제원을 정확히 산출, 사격시 신속성을 보장할 수 있

는 포병사격지휘현대화체계(FDC)를 비롯하여 발칸포, 지대공 유도무기 및 함정의 사격통제체계와 사격제원 계산기 등을 개발, 생산하고 있으며, 정보·전자전 분야에서는 국내 유일의 전자전 전문업체로서 소형 및 중대형 함정에 사용되는 ECM·ESM장비를 비롯하여 항공기용 전자전장비를 개발, 생산하여 우리 군의 자주국방력 건설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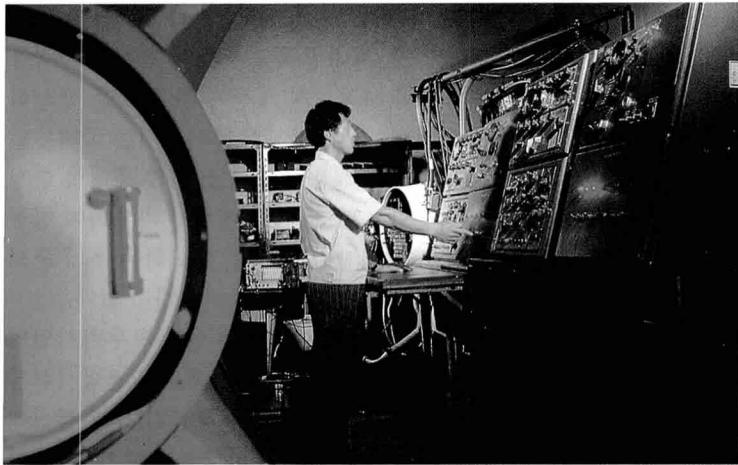
또 항공전자분야에서는 한국 전투기사업의 항공전자장비 생산 주력업체로서 전방시현장치, 임무통제컴퓨터, 무선통신기 등의 생산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헬기, 민간 항



▲ 사이드 와인더 목표물 추적성능 시험 장면

공기 등 각종 항공기와 한국형 초·고등 훈련기 개발사업의 항공전자 분야에도 참여함으로써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방위산업 제품은 성능과 정확성 면에서 완벽을 기하기 때문에 LG정밀은 군사 표준규격에 의한 품질검사 체계를 구축하고 철두철미한 품질보증체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무기체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EMI/EMC 등의 전자파시험과 항온·항습 자동시스템 등 최신 환경 시험시설을 갖추고 품질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유도무기의 신뢰도를 보장하는 첨단 시험설비에 의한 엄격한 품질보증 테스트

■ R & D 글로벌화 추진과 민수활용

탈냉전 이후 무기시장 감소로 인한 무기수출국들의 한국시장 침투의 적극화, 기술제휴국 중 특히 미국의 핵심기술 이전 기피, 주요 부품의 국산화율 저조 등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LG정밀은 고도 정밀무기 분야의 연구 개발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500여명의 고급 연구인력이 최첨단 연구설비와 매출액의 약 20%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 투자를 바탕으로 국내 방위산업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체계종합장비 및 통신장비 운영에 필수적인 시스템 엔지니어링기술과 통신 프로토콜 기술에 관련한 세계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해외기술 Sourcing 및 해외 우수 연구인력의 영입, 해외 연구소와의 교류 활성화를 통해 R & D 글로벌화의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한편 LG정밀은 고도의 방위산업 기술을 주도하면서 카메라, 선박용 전자장비, 계측기기 등 정확성과 정밀성을 요하는 민간산업으로 꾸준히 기술이전함으로써 산업 고도화에도 크게 앞장서고 있다.

최근에는 지금까지 군용시스템이나 항공기, 선박 등에 주로 이용되던 고가의 관성항법장

치 기술을 이용, GPS(인공위성 위치확인 시스템) 위성에서 제공되는 신호와 함께 차량 항법장치(Car Navigation System)를 개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이와 함께 항공기 조종석 대화 녹음장치인 CVR을 개발, 생산한 경험으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자동차용 블랙박스의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LG정밀은 얼마전 국내 최초로 고출력 고주파 진행파관 증폭기(TWTA)의 개발에 성공했

다. TWTA는 레이더, 미사일, 전자전장비 같은 군용장비의 핵심 부분품인 동시에 차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디지털 TV 방송 시스템 및 고부가가치 무선 통신망 시스템 설계의 근간이 되기도 하는 첨단 기술제품으로 앞으로 이동통신 사용의 증가와 무선 CATV의 출현 등으로 이 제품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연간 600억 원 이상의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처럼 LG정밀은 방위산업의 기술 집약적이고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수입대체와 수출을 통한 외화획득뿐 아니라 새로운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켜 국가경제의 고도화, 다양화에 기여하고 있다.

■ 환경변화 능동 대응, 질과 양에서 1등 실현

LG정밀은 최근 전 부문에 걸친 경영혁신 활동을 전개해 연평균 3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이룩했으며, '96년에는 새로운 비전인 '도약 2005'를 선포하고, 2005년까지 매출 2조5천억 원을 달성, '경영의 질과 양에서 동시에 1등 실현'을 목표로 글로벌 경영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장기 관점에서의 생산능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판단 아래 총 공사비 390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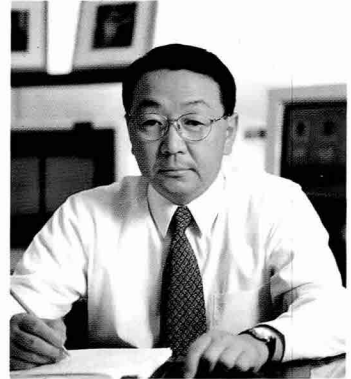
억 원을 투입, 기존 구미공장 부지에 연건평 9,000평 규모의 공장을 신축중이다. 신축공장에서는 연간 매출 6천억 원 규모의 통신장비, 수중장비 등 방산장비와 차량용 전장품 및 계측기기가 생산될 예정이다.

LG정밀은 '97년 12월 宋在仁 사장의 취임으로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맞고 있다. 신임 宋사장은 LG정보통신 재직시절 첨단 이동통신 기술인 CDMA의 개발 및 사업화를 주도했고, 구 소련 등지로의 통신장비 수출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의 기반을 견고히 하여 LG정보통신을 급성장시킨 주역으로 정보통신 분야에 관한 폭넓은 시각과 해박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전문 경영인이다.

환경의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전략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남보다 한발 앞선 '스피드 경영'을 지향하는 宋사장의 경영방침에 따라 LG정밀은 변혁과 실천의 생활화를 통한 또 한번의 도약을 시도하고 있다.

방산사업부장을 맡고 있는 具滋俊 전무는 LG정밀 설립 당시 유도탄을 비롯한 군수 기술 분야에 관한 미국 현지 기술연수에 직접 참가했었고, LG전자, LG상사 등 LG그룹내 주요 회사에서 수출업무를 관장하면서 해외시장 개척에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최근 방산 기술의 독

▼ 국내 방산업체 최초로 방산장비 서비스센터를 개설하고 軍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방산사업부장 具滋俊 전무

자 개발을 주도하면서 군 장비 현대화에 기여한 것은 물론, 오늘날 LG정밀 방산사업의 성장 발전을 있게 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LG정밀은 새로운 경영체제 속에서 방산의 핵심 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심화·발전시키는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민수사업도 적극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으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오늘날 LG정밀은 유도무기, 레이더, 통신전자장비, 지휘통제장비, 정보·전자전장비, 항공전자장비 등 정밀 전자장비 전 분야에서 명실공히 선두주자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고, 여기서 축적한 기술을 바탕으로 정밀 계측기기, 차량 전장품 등을 비롯한 민수사업 분야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도 LG정밀이 성장을 거듭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자주 국방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높은 사명감과 부단한 혁신활동을 통해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능동적, 창의적으로 대응해온 결과일 것이다.

LG정밀은 고객을 가장 아끼는 회사, 고객이 가장 믿을 수 있는 회사, 전 세계를 상대로 경쟁하는 Global Leading Company를 향해 도약하고 있다. **BJ**